

“진로교육 성공도시 익산”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익산교육 대전환 마스터플랜 발표 교육발전특구 법정화·원도심 오픈스쿨·다이로움 책임교육 등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익산 전역을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재구조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찾아오는 진로교육 성공도시 익산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교육 대전환 5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소극적인 학교 유지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캠퍼스로 재구조화해 인구를 유입시키는 유인 전략으로 익산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익산 교육발전특구 법정화 추진, 북부권 의학교육 연계 구축형 명품중학교 조성, 고교 브랜드화, 원도심 오픈스쿨 선진, 다이로움 책임교육 등 5대 축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익산을 전북형 교육발전특구의 대표 모델로 육성해 전북교육청과 익산시, 지역 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통해 북부권 거점중학교와 면·동 소규모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 지속사와 연계한 숙박형 집중캠프, 교육·돌봄·청년 일자리를 결합한 정주형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북부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북부권에 의학교육 지속형 명품중학교와 통합학교 모델을 구축해 전북 대표 교육 모델로 육성하고, 통합 수용 지역에는 생활SOC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과 증축 검토 공동통학구 운영, 셔틀버스와 스마트 통학로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교 브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비후보가 1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교육 대전환 5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나섰다.

랜드트레일’ 구상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학교별 강점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학업 명문고, 기숙형 집중 모델 특성화 거점학교 등으로 고교 체제를 재편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식품 특성화고 및 철도 분야 특성화 고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리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과 지역 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이리여고 이전 추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또 교육부의 지역 명품학교 사업과 연계해 “전북 어디서든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교육 상황평준화 전략도 제시했다.

익산 전체를 진로교육 중심 도시로 재편하는 비전도 강조했다.

폐교를 활용한 진로융합교육센터 조성, 중학교 연 2회 직업체험,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대학 연계 현장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진로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원도심 학교에는 예술과 AI 등 학교

별 특화 주제를 반영한 ‘1교 1테마 브랜드스쿨’을 운영하고, 학교시설을 주민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원도심 오픈스쿨’ 전략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 교육시설 관리단을 설치해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학생 지원 정책으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와 함께 AI 기반 학습 진단 및 맞춤형 보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마음건강 365 프로젝트’를 통해 정기적인 심리·정서 진단과 의료기관 연계망 구축도 추진한다.

농산어촌 지역에는 심야 택시 비우체와 야간 학교버스를 도입해 안전한 귀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북부권 소멸 위기와 식품클러스터, 대학도시라는 익산의 자원을 하나로 묶어 교육으로 풀어내겠다”며 “소멸 위기에 산업, 대학 지원을 연결해 ‘찾아오는 교육도시’의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피지컬AI 실증랩, 국가 제조 AX 핵심 부상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전북대 찾아 현장 점검 앞서 이 대통령·부총리·통일부장관 등도 현장 방문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를 찾아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의 연이어 방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국가 AI 정책 실행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대는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가 15일 본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제조 기술실증랩’을 점검하고,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 AI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인 5급 3급 기반 AX 혁신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현장 점검으로, 전북을 피지컬 AI 중심의 제조 AX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

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은, 실제 제조 공정에 AI가 적용된 현장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지역 산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육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배경훈 부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연이어 실증랩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북대를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국가 최고 의사결정 라인의 연속된 방문은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정책 실행과 산업 확산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대는 피지컬 AI 사전검증(PC)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제조·물류 분야 실증랩 구축과 산업

적용을 통해 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KAIST, 성균관대학교,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리벨리온 전북테크노파크, 캠틡종합기술원 등 주요 산·학·연 주체들이 참여해 대규모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문 당일 전략위원회는 제조 기술실증랩에서 피지컬 AI 기반 공정 자동화, 이중 로봇 협업 정밀 작업 데이터 수집 등 핵심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실제 제조현장 적용 가능성과 산업 확산 전략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조 기업 AI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데이터 및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본사업 추진 방향 등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전략위원회와 전북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피지컬 AI 기반 제조 AX 확산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북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와 인재 양성 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본청 6층 위원회실에서 '2026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업무추진팀(TF)' 첫 회의를 열고, 전북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틈새 돌봄’ 확대 운영

전북교육청, 유치원별 수요 반영 돌봄 유형 다양화 ‘핵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15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종일·저녁·방과후 연장 돌봄을 비롯해 거점형 돌봄, 연계형 돌봄 등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돌봄 모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틈새 돌봄 확대의 핵심은 유치원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유형의 다양화에 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온종일·저녁·방과후 연장 돌봄은 올해 공·사립 유치원 188개원에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계형 돌봄’도 새롭게 도입돼 7개 원을 대상으로 사범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거점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른 기관 유아까지 함께 돌보는 ‘거점형 돌봄’은 지난해 어린이집 3개소에서 올해 유치원 5개원과 어린이집 2개소로 확대됐다.

거점형 돌봄은 아침과 저녁은 물론 방학 기간, 토요일 돌봄까지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다 촘촘하게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어난 28억6470만원으로 편성했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유치원 돌봄은 연 2회 자체 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며, 거점형·연계형 돌봄은 돌봄지원단 모니터링과 컨설팅,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도내 초등 학습보조자료 4종 보급

전북교육청, 학습플래너·교과별 탐구노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 보조자료 4종을 도내 학교에 보급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과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 학습플래너와 교과별 탐구노트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보급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이다. 초등 학습플래너는 3만8000부, 탐구노트는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별로 각 4만4,000부씩 제작해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초등 학습플래너 ‘빛나라! 오늘해!’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뒤 점검하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과별 탐구노트는 ‘초등어휘사전 1600’ (국어), ‘초등수학개념노트’ (수학), ‘초등영어활용노트’ (영어)로 개발됐다. 국어는 교과서 연계 어휘 학습, 수학은 핵심 개념 이해 중심 학습, 영어는 어휘와 구문 활용 중심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자료 개발에는 도내 초등교사 81명이 집필과 검토에 직접 참여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지난해 보급 자료의 내용과 구성 체계,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교과별 탐구노트는 대학 교수의 감수를 거쳐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초등 교과지도 및 학습코칭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맞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학습플래너 활용 공모전과 초등 어휘력 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사교육 부담 줄이고... 공교육 신뢰 높이고...

전북교육청, 2026 사교육 경감 TF 가동...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15일 본청 6층 위원회실에서 2026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업무추진팀(TF) 첫 회의를 열고, 전북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68.4%로 전년보다 5.0%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도 332만2,000원으로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월

평균 지출은 50만 원으로 3.7% 증가했으며, 도시 지역에 사교육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내·외부 위원 30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전담팀은 교과 학습지원, 진로·진학 지원, 사교육 선제 대응 영유아 사교육 선제 대응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학교·교과·교과별 맞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교육부의 2026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중위권 맞춤형 학습지원, AI·디지털 기반 학습체계 구축, 늘봄 학교 및 방과후학교 확대, 공공 진로·진학 상담체계 강화, 학부모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도시는 사교육을 줄이고, 농촌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사교육 경감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 공모사업 추진

전북교육청, 어울림학교·농어촌유학 운영 학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농어촌 작은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특색교육과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어울림으로 더욱 빛나는 농어촌 작은학교’를 주제로 어울림학교와 농어촌유학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교육과정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작은학교의 강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형 교육모델을 발굴해 교육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모 대상은 전북교육청의 대표적인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인 어울림학교 14개교와 농어촌유학 운영 학교 47개교다. 공모 분야는 수업·공동교육과정, 독서·인문, 자연·생태, 문화·예술, 시민교육, 진로교육, 학력신장 등 7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각 학교는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춰 최대 2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입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 작은학교의 위기는 곧 농어촌 지역 소멸의 위험과도 맞닿아 있다”며 “학교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사선이 담긴 그림책과 마을 생태도감, 단편영화, 미니 다큐멘터

리, 영상 등 다양한 창의적 결과물은 농어촌 작은학교의 교육활동을 기록하는 동시에 학교를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6일부터 24일까지 특색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작성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25개교 안팎을 선정할 뒤 오는 5월 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 작은학교의 위기는 곧 농어촌 지역 소멸의 위험과도 맞닿아 있다”며 “학교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